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연기(緣起)이므로 평등(平等)하다

잡간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1) 불교의 첫걸음은 우리가 아는 '사물'의 세계가 주관적 욕망과 환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부터입니다. 주관적 욕망에 물든 환상의 세계를 상(相)이라고 하고, 그 칙칙한 집착을 벗어난 객관의 세계를 법(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상(相)의 세계에 집착적 무의식적으로 취면되어 있어서 객관적 법(法)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잘 자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습니다.

제거한 형태로, 남의 일처럼 순수 객관적 요소로 분석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아(無我), 나를 떠나므로써, 나는 비로소 해방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보는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기법과 화엄의 세계, 즉 사물의 각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緣起), 그리하여 총체적으로 하나인 세계(華嚴)의 장엄한 모습입니다.

신성한 예스 이 세계를 엿보신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까짓 것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플 앞의 잣나무'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듯이, 이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다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뜻대로 안되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미당 서정주 노인의 시처럼, 모든 인간적 흔적을 뒀으며 내리는 눈발 속에서, "괜찮다, 괜찮다"고 몇 마디 해 줄 때, 그때 그 세계가 단숨에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니이체는 이것을 '신성한 예스(Heilige Ja)'라고 불렀습니다.

불교 공부는 다른 공부와 마찬가지로, 반

복하여 되새기면서 내 몸 깊이 각인시켜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치들이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렇군'이고, 길을 가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그렇군'이며, 택시에서 요금을 승강이하다가도 '그렇군'이라야 비로소 불교의 가르침이 삶과 피의 지혜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연기법의 자연스런 귀결 하나를 살펴볼려 합니다. 그것은 '평등(平等)'

조금 까다롭습니다. 내 식대로 의해 보겠습니다. '또 수보리아, 객관적 세계(法)는 평등하니, 아래 위나 혹은 선악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이 소식을 아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이다. 의식 무의식적 자아의 짐과 흔적을 다 지우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최고의 지혜가 성취될 것이다. 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보리아, 내가 지금 '깨끗한 삶'이라 말한 것은 자아에 물든 더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에서

다리가 짧아서 싫다고 말한다면, 그는 상(相)의 세계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곳이 미묘합니다. 이 분별(分別)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호오와 가치판단은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적, 문화적 집단의 수준까지, 표면적 의식에서 무의식적 수준까지 걸쳐 있는 '우상'입니다. 그 바탕에 예고가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

다. 자신을 보존하고 영속시키려 하는 무

하의 법(法)이 다른 법들과 인연(因緣)에 의해 모여 행(行)을 형성했다가, 잡나에 말한다면, 그리하여 우주가 잡나에 말하는 법들의 연기적 과정(process)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다음과 같은 중대한 귀결이 도출됩니다. "우리는 그들 법(法) 사이의 가치의 우열을 매길 수 없다!"

이 높낮이의 차별 없는 특성을 불교는 평등(平等)이라 부릅니다.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길고 짧음도 없고, 좋아하고 싫어함도 없으며, 명에도 좌절도 없습니다. 나아가, 승강하기 쉽지 않겠지만, 삶도 죽음도 없습니다. 삶도 죽음도 없는 관에, 불교는 어디 있었으며, 사성제 12연기며, 오온 육식이며, 연기법이며 화엄의 이치인들 어디 있었습니까.

무슨 그런 불경스런 망발이 있는나고요..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이 그 섬뜩 아득한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舍利子 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是故 空中無色 無受想行識 無眼耳鼻身意 無色聲香味觸法 無眼界 乃至無意識界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無老死 亦無老死盡 無苦集滅道 無智亦無得."

한국학중앙연구원

내리는 눈발 속에서 "괜찮다, 괜찮다"

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중심 개념임을 다들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 제 23정심행선분(淨心行善分), 번역하자면, "자아의 집착을 떠나 깨끗한 마음으로 산다"편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復次 須菩提 是法 平等 無有高下 是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 以 無我 無人 無衆生 無壽者 修 一切善法 則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所言善法者 如來說 即非善法 是名善法"

직역부터 해 볼까요. '또 수보리아, 이 법(法)은 평등(平等)하여 아래 위가 없으니, 이를 일러 아늑다라삼삼보리라고 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일체(一切)의 선법(善法)을 닦으면 즉, 아늑다라삼삼보리를 얻는다. 수보리아, (지금) 말하는 바 선법은, 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은) 선법이 아니다. 이를 선법이라 한다.'

학의 다리 긴 대로, 참새 다리 짧은 대로



말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삶이 자체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은 천만 아니다. 객관적 세계에는 더럽고 깨끗한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장자는 이 소식을 "학의 다리 긴 대로, 참새 다리 짧은 대로"라고 표현했습니다. 학의 다리는 길고, 참새 다리는 짧습니다. 여기까지는 법(法)의 세계에 속합니다. 그러나, 여기 학의 다리는 길어서 좋고, 참새

의식적 욕구가 이 모든 분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근본 동인입니다. 나는 불교가 말하는 무명(無明)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조주의 '플 앞의 잣나무'

만일, 우리가 사물을 주관적 환상을 떠나서 바라보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如

주장사파라...

54 도림선사의 '위험한 곳'



조태호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Panel 1: '날마다 수나무에 올라 좌선한다 해서...'. Panel 2: '저대동지 조과(德業) 선사라고 했다...'. Panel 3: '내가 보기에 당신 이 더 위험한 것 같소...'. Panel 4: '여?'. Panel 5: '허허! 명색이 이 고을 태수인데 뭐가 아쉬워...'. Panel 6: '내 참 어이 없군...'. Panel 7: '당신은 생각 이...'. Panel 8: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Panel 9: '불같은 성질인데...'. Panel 10: '어찌 위험하지 않소?'. Panel 11: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12: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13: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14: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15: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16: '나도...'. Panel 17: '피!'. Panel 18: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19: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20: '...'. Panel 21: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22: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23: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24: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25: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26: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27: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28: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29: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30: '나도...'. Panel 31: '피!'. Panel 32: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33: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34: '...'. Panel 35: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36: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37: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38: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39: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40: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41: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42: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43: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44: '나도...'. Panel 45: '피!'. Panel 46: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47: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48: '...'. Panel 49: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50: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51: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52: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53: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54: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55: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56: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57: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58: '나도...'. Panel 59: '피!'. Panel 60: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61: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62: '...'. Panel 63: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64: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65: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66: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67: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68: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69: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70: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71: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72: '나도...'. Panel 73: '피!'. Panel 74: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75: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76: '...'. Panel 77: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78: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79: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80: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81: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82: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83: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84: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85: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86: '나도...'. Panel 87: '피!'. Panel 88: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89: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90: '...'. Panel 91: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92: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93: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94: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95: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96: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97: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98: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99: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100: '나도...'. Panel 101: '피!'. Panel 102: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103: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104: '...'. Panel 105: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106: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107: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108: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109: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110: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111: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112: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113: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114: '나도...'. Panel 115: '피!'. Panel 116: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117: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118: '...'. Panel 119: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120: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121: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122: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123: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124: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125: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126: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127: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128: '나도...'. Panel 129: '피!'. Panel 130: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131: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132: '...'. Panel 133: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134: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135: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136: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137: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138: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139: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140: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141: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142: '나도...'. Panel 143: '피!'. Panel 144: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145: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146: '...'. Panel 147: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148: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149: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150: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151: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152: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153: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154: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155: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156: '나도...'. Panel 157: '피!'. Panel 158: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159: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160: '...'. Panel 161: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162: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163: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164: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165: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166: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167: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168: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169: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170: '나도...'. Panel 171: '피!'. Panel 172: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173: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174: '...'. Panel 175: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176: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177: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178: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179: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180: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181: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182: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183: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184: '나도...'. Panel 185: '피!'. Panel 186: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187: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188: '...'. Panel 189: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190: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191: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192: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193: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194: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195: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196: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197: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198: '나도...'. Panel 199: '피!'. Panel 200: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201: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202: '...'. Panel 203: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204: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205: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206: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207: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208: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209: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210: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211: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212: '나도...'. Panel 213: '피!'. Panel 214: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215: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216: '...'. Panel 217: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218: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219: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220: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221: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222: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223: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224: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225: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226: '나도...'. Panel 227: '피!'. Panel 228: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229: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230: '...'. Panel 231: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232: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233: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234: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235: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236: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237: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238: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239: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240: '나도...'. Panel 241: '피!'. Panel 242: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243: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244: '...'. Panel 245: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246: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247: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248: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249: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250: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251: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252: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253: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254: '나도...'. Panel 255: '피!'. Panel 256: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257: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258: '...'. Panel 259: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260: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261: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262: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263: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264: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265: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266: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267: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268: '나도...'. Panel 269: '피!'. Panel 270: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271: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272: '...'. Panel 273: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274: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275: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276: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277: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278: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279: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280: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281: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282: '나도...'. Panel 283: '피!'. Panel 284: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285: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286: '...'. Panel 287: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288: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289: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290: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291: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292: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293: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294: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295: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296: '나도...'. Panel 297: '피!'. Panel 298: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299: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300: '...'. Panel 301: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302: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303: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304: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305: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306: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307: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308: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309: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310: '나도...'. Panel 311: '피!'. Panel 312: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313: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314: '...'. Panel 315: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316: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317: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318: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319: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320: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321: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322: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323: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324: '나도...'. Panel 325: '피!'. Panel 326: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327: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328: '...'. Panel 329: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330: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331: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332: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333: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334: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335: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336: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337: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338: '나도...'. Panel 339: '피!'. Panel 340: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341: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342: '...'. Panel 343: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344: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345: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346: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347: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348: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349: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350: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351: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352: '나도...'. Panel 353: '피!'. Panel 354: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355: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356: '...'. Panel 357: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358: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359: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360: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361: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362: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363: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364: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365: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366: '나도...'. Panel 367: '피!'. Panel 368: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369: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370: '...'. Panel 371: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372: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373: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374: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375: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376: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377: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378: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379: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380: '나도...'. Panel 381: '피!'. Panel 382: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383: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384: '...'. Panel 385: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386: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387: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388: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389: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390: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391: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392: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393: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394: '나도...'. Panel 395: '피!'. Panel 396: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397: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398: '...'. Panel 399: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400: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401: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402: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403: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404: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405: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406: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407: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408: '나도...'. Panel 409: '피!'. Panel 410: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411: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412: '...'. Panel 413: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414: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415: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416: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417: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418: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419: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420: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421: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422: '나도...'. Panel 423: '피!'. Panel 424: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425: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426: '...'. Panel 427: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428: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429: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430: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431: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432: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433: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434: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435: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436: '나도...'. Panel 437: '피!'. Panel 438: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439: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440: '...'. Panel 441: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442: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443: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444: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445: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446: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447: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448: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449: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450: '나도...'. Panel 451: '피!'. Panel 452: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453: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454: '...'. Panel 455: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456: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457: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458: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459: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460: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461: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462: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463: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464: '나도...'. Panel 465: '피!'. Panel 466: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467: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468: '...'. Panel 469: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470: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471: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472: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473: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474: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475: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476: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477: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478: '나도...'. Panel 479: '피!'. Panel 480: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481: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482: '...'. Panel 483: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484: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485: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486: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487: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488: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489: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490: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491: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492: '나도...'. Panel 493: '피!'. Panel 494: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495: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496: '...'. Panel 497: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498: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499: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500: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501: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502: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503: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504: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505: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506: '나도...'. Panel 507: '피!'. Panel 508: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509: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510: '...'. Panel 511: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512: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513: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514: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515: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516: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517: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518: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519: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520: '나도...'. Panel 521: '피!'. Panel 522: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523: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524: '...'. Panel 525: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526: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527: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528: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529: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530: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531: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532: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533: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534: '나도...'. Panel 535: '피!'. Panel 536: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537: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538: '...'. Panel 539: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540: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541: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542: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543: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544: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545: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546: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 547: '불법... 더 배울 것 없다 이거다...'. Panel 548: '나도...'. Panel 549: '피!'. Panel 550: '그건 3살먹은 애도 알아요...'. Panel 551: '불법은 조금 있는데...'. Panel 552: '...'. Panel 553: '3살먹은 아이도 알지만...'. Panel 554: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군...'. Panel 555: '제자는 순간 깨닫는다...'. Panel 556: '불법은 배우려 허매는 무거운 맘 기껏 하나의 실오라기 라는걸...'. Panel 557: '번덕 선사의 말을 감지한 그는...'. Panel 558: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 Panel 559: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Panel 560: '어느날 조과선사의 제자가 이별인사를 한다...'. Panel